

누가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가?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 인식의 변화, 2010-2024*

고민희 | 이화여자대학교**

이혜영 | 이화여자대학교***

| 국문요약 |

여성할당제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할당제에 대한 여론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년도 실증 분석을 통해 여성할당제의 인식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할당제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수록 대중의 선호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분열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 관찰되었다. 둘째, 여성할당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능력주의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능력주의의 성향과 여성할당제 선호는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능력주의에 대한 키워드가 부상한 이후 통계적 유의미성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능력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여성뿐 아니라 청년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세대는 여성할당제와 지속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능력주의와의 유의미한 교차효과를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성별과 세대 요소가 능력주의가 아닌 다른 기제를 통해 여성할당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보다 엄밀한 개념 정립과 측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여성할당제, 능력주의, 청년할당제, 페미니즘, 공정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8052495).

**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제1저자

***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교신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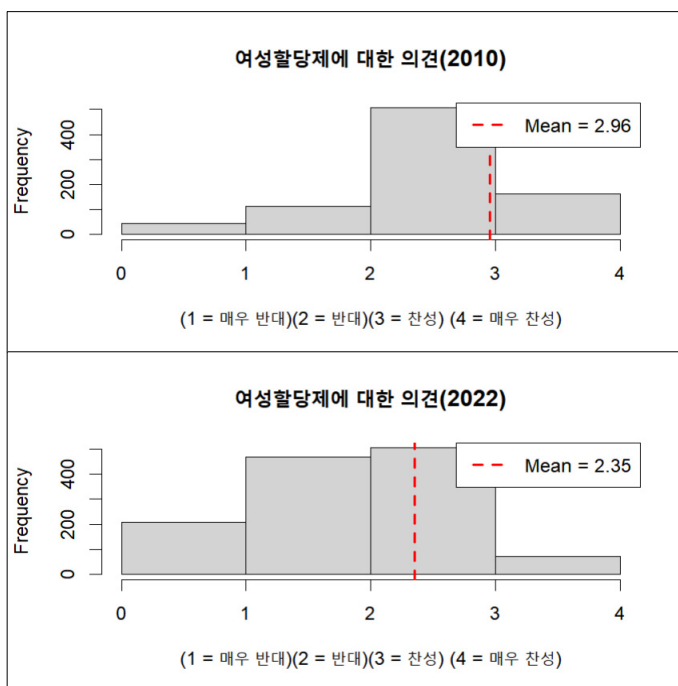
I. 서론

올해는 여성할당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의 의무 추천 비율을 30%에서 50%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여성할당제의 의무화는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1인 2표제와 더불어 여성들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정다빈·이재묵 2020). 제헌국회 수립 이후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던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제17대 의회부터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선거였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20%인 60명의 여성이원이 당선되며 역대 최대 당선율을 달성하였다. 할당제로 인해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 수가 직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여성 다선 의원 및 지역구 여성 당선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등의 확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김민정 2014).¹⁾ 실제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의 여성 당선자 수는 역대 최다인 36명(더불어민주당 24명, 국민의힘 12명)을 기록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 행위자로 기능해 온 정치의 영역에서 여성의원의 증가가 여성 정책의 집행 및 선명성(salience)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김은경 2010; 신기영 2019; Batto 2018; Clayton 2021; Huang 2016; Shim 2021; Weeks 2023). 그러나 여성할당제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표성에 대한 여론은 할당제 도입 이후 점차 악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최근 들어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1>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에서 실시된 ‘2010년 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와 ‘2022년 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찬성 정도를 시각화한 것으로, 여성할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의 여성 당선자 수는 역대 최다인 36명(더불어민주당 24명, 국민의힘 12명)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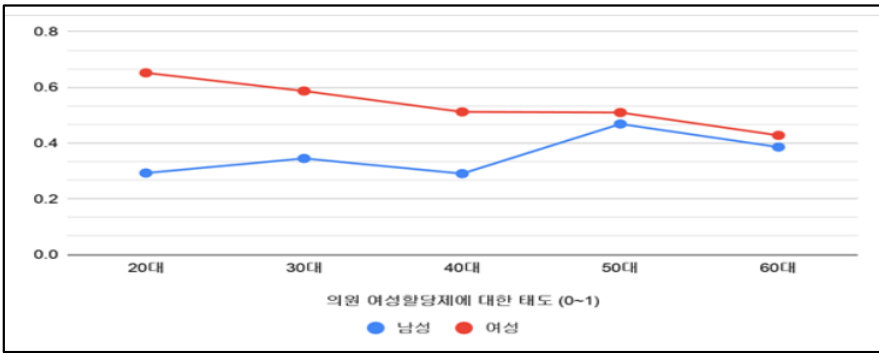
당제에 대한 의식이 지난 10여 년간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할당제 찬반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0년에는 ‘찬성’과 ‘매우 찬성’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였던 2022년에는 ‘매우 찬성’의 비율이 줄어들고, ‘매우 반대’와 ‘반대’의 응답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성할당제에 대한 평균적 의견은 2010년 ‘찬성’에 가까웠던 반면(mean=2.96) 2022년에는 ‘반대’에 가까워지면서(mean=2.35), 할당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전환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 (1: 매우 반대, 4: 매우 찬성)

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와 동시에 여성할당제에 대한 성별 격차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연구(이진옥 외 2020)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나, 찬반에 대한 젠더 격차는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2>). 20-30대 여성들에게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주를 이룬 반면, 20-40대 남성은 여성할당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 격차는 20대 남녀 사이에 가장 크고 세대가 올라갈수록 좁혀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 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태도 (0: 부정적, 1: 긍정적)

(출처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그동안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숙과 의회정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0년간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동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 변화의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이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할당제의 찬반여부에 대해 급격한 성(性)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그간의 사회 변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사회의 교육, 취업, 소득분배 등에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능력주의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여성할당제를 포함한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논란 또한 더욱 첨예하게 전개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시장(market)에서 뿐 아니라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도 실행된 바 있으며,²⁾ 이에 여성할당제와 같은 우대정책은 역차별이라는 인식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에 대한 여론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할당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20대 남성들의 보수화, 일명 ‘이대남(20대 남성)’현상의 출현 이후 젠더갈등이나 능력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김내훈 2021; 이현준·박지훈 2021; 권수현·윤채영 2022; 노기우·이현우 2022; 한유정·김민지 2022), 이를 할당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연구는 적을뿐더러 젠더갈등과 능력주의가 주목받기 전후를 비교하는 연구는 더욱 찾기 힘들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 또한 단년도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권수현·윤채영 2022; 강신재·정민경 2020; 정다빈·이재묵 2020), 할당제의 의식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여성할당제 인식의 변동 요인에 대한 단년도 실증 분석을 통해 여성할당제의 정치적 맥락을 살피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될 여성할당제 논의의 방향과 흐름을 조망하고자 한다.

2) 예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국민의 힘에서는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지방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는 필답고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 힘 당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사항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 응시자들이 치르는 공직적격성평가와 같은 채용 시험과 비슷한 성격의 평가이다. 필답고사 형식의 자격평가는 지식 위주의 능력주의적 사고에 기반하며, 이러한 형태의 자격시험이 정치인의 자질 선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윤왕희 2022).

II. 이론적 논의

1. 여성할당제에 대한 선행 연구

여성할당제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의회 내에 진출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는 여성할당제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의회 내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이에 여성들의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이 증가할 수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De Paola et al. 2010; Franceschet et al. 2012; Krook 2010; Tripp and Kang 2007). 이러한 기술적 대표성의 증가는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성 후보자가 선거에 나설 때 유권자 중 여성이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정당들은 여성후보자에 대해 덜 편향적으로 반응하며 여성의 정계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시적으로는 성차별적인 정치 문화가 줄어들고, 정치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사라진다는 여러 연구도 존재한다(Beaman et al. 2009; Gilardi 2015; Lawless and Fox 2010; O'Brien and Rickne 2016; Wolbrecht and Campbell 2007).

한국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할당제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정다빈·이재묵(2020)은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한국에서의 제도적인 발전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공직 선출 자료 분석을 통한 여성할당제의 효과성 증명 및 유권자 인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권수현(2019)의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진입에 있어 성별화된 장벽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치구조와 제도적인 환경이 남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많은 장벽을 마주하게 되며, 따라서 여성할당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경희(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할당제의 국제적인 동향과 쟁점에 주목하는데, 각 국가가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 채택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세력들, 한

국의 여성할당제 시행 결과에 관하여 논의한다.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한 기술적인 대표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성에 대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여성의원이 남성보다 더 많이 여성 관련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발언하고, 법안을 제출해 왔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서복경(2010)은 제17·18대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률안의 특징과 정책 선호도를 분석했다. 엄태석(2010)은 고양시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의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김원홍 외 (2007)은 정책현안에 대해서 여성의원은 양극화 해소(45.8%), 여성/노동문제(8.3%), 교육 문제(8.3%) 등에 우선순위를 보여, 경제성장 문제(28.6%), 외교/안보/통상문제(24.1%)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남성의원과 차이를 나타냄을 밝혀냈다. 또한, 여성의원의 확대는 정치적 태도, 의정활동 역할, 정책 우선순위와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 정책을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로 인해 여성의원이 여성 의제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2. 여성할당제의 인식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여론은 정책의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할당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적인 시행은 대중의 지지에 달려있다(Lipset 1983). 또한 여론은 정책이 채택된 후에도 중요한데, 정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의 반대는 대표성이 낮은 집단의 후보들에 대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Clayton 2015). 즉, 할당제를 통해 진출한 정치인들이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토큰(token) 여성이나 여왕벌(queen bee)로 인식될 경우(Corsun and Costen 2001; Kanter 1977; Zimmer 1988), 여성정치인들은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여성대표성과 거리를 두고 더욱 주류처럼 행동하려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에서 여성 할당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해외에서 다수 진행되었다(Batista Pereira and Porto 2020; Meier 2012). 남성이 지배적이었던 정치 무대에서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은 성평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연구에 더하여(Krook 2015; Verge and de la Fuente 2014; Yoder 1991), 성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개인이 여성할당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도 각각 라틴 아메리카(Barnes and Córdova 2016), 아일랜드(Keenan and McElroy 2017), 호주(Beauregard 2018)에서 연구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성할당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여성할당제에 대해 찬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김도경 2008; 신기영·황아란 2017; 이소영 2013; 정다빈·이재목 2020; 강신재·정민경 2020). 신기영·황아란(2017)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대부분의 의원이 국회의 여성 대표성의 수준이 아직 낮으며 더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의원들의 대부분이 바람직한 여성의원 비율이 3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도 밝혀졌다. 또한 여성 할당제와 함께 청년 할당제에 대한 인식 조사도 같이 진행하였는데, ‘20~30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성 균형에 찬성하는 의원이 반대하는 의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들의 성 균형 의회에 대한 태도가 성별만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대표성의 질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권수현·윤채영(2022)의 연구에서는 의원여성할당제 선호에 대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적 믿음이 강할수록 의원여성할당제, 법적여성할당제, 성별균형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2020년에만 실시된 설문조사로 전체적인 한국 사회 내에서의 흐름을 보기 어렵다.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할당제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남성이 여성할당제에 반대한다는 사실은 젊은 세대에 팽배한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강신재·정민경(2020)은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을 비롯한 각종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할당제 찬반 여부의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할당제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교육 및 소득 수준과 여성할당제 찬성 간에 유의미한 결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세대가 아닌 실제 연령(19-80세)으로 변수화하여 연령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다빈·이재목(2020)은 여성공천할당제에 대한 의식에 성차가 존재하나, 과반수의 남성이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볼 때 유권자들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할당제에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정치권에서도 여성할당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할당제에 대한 여론은 과거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2020년 현재 과반수의 유권자가 할당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인다는 결과를 할당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함이 적절할 것이다.

여성할당제와 여론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성별 및 세대 가설: 성별과 세대는 여성할당제 찬반 여부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1) 남성은 여성보다 여성할당제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가설 1.2) 젊은 남성은 젊은 여성 혹은 나이 든 남성보다 여성할당제에 반대할 것이다.

가설 1.3) 성별과 세대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미해질 것이다.

3. 능력주의에 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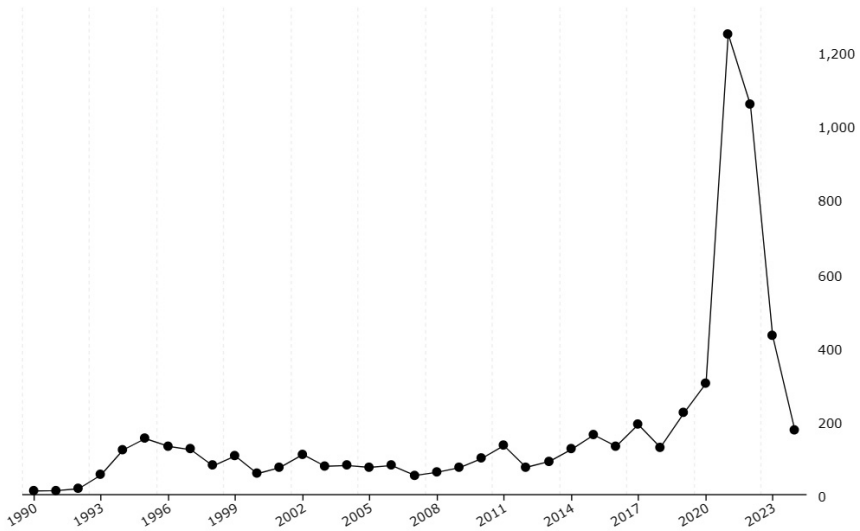
젊은 세대 간의 젠더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20대 집단 내의 젠더갈등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이어졌으나, 이를 여성할당제라는 구체적 정책과 연결 짓는 연구는 많지 않다. 20대 남성의 가부장제에 대한 반대가 타 연령 집단에 비해 오히려 높다는 점과 성별 간 20대의 정치이념 차이가 다른 세대의 성별 차이와 비교하여 확연하게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박선경 2020)는 현재 한국 사회의 20대 남자 현상이 허상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김종철·정숙정 2015; 마경희 외 2017; 박선경 2020; 안상수 외 2014; 정은숙 2015; 최종숙 2020).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으로 인해 여성할당제의 문제는 일견 성차별적 요소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젠더갈등이 실은 강력한 성평등의식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여성할당제는 오히려 성별 그 자체보다는 성별을 기표로 한 “할당”의 문제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능력주의의 부상이 여성할당제의 찬반에 끼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마이클 영의 저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그는 지능과 노력이 결합하여 능력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능력에 따라 지위의 배분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능력주의라고 이름 붙였다(Young 1958). 능력주의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Talib and Fitzgerald 2015). 즉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고, 게임의 룰이 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다(노기우·이현우 2022). 능력주의에서의 공정은 형평과 절차적 정의의 합으로 요약 가능하다(곽영신·류용재 2021). 형평은 ‘개인의 기여

도에 따른 몫의 분배'을 의미하며, 절차적 정의는 '분배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 결과는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구은정 2022; 박효민 2019; Bolton et al. 2005).

현재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 양상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20대 남성이 '역차별 담론'과 '공정성 담론'을 내세우며 젠더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한유정·김민지 2022).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양극화,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정, 협소한 취업시장 등의 현상은 취업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포기하게 되는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았다(노기우·이현우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남성들은 여성에게 주어진 할당제, 가산점 등에 대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다(박무늬 외 2019). 그리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로 20대 남성이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능력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소수자 우대정책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우인범·장승진 2023).

그렇다면 한국에서 능력주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능력주의"라는 키워드가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정도를 살펴본 결과, 2018년을 기준으로 기사의 빈도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그림 3>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의 능력주의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Bell 2013), 한국에서 능력주의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능력주의 담론이 부상하게 된 계기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체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엘리트 자녀 특혜 논란 등으로 요약된다(노기우·이현우 2022). 특히 능력주의에 대한 언급이 증가한 것은 2018년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과 '이대남' 현상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과 연관이 있다(여성민 2022; 천관율·정한울 2019).



〈그림 3〉 1990 - 2024 ‘능력주의’ 기사 빈도수

출처 :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능력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주의할 점은 기회의 평등은 능력주의와 양(+)의 상관관계를, 결과의 평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능력주의에 따르면 경쟁을 통한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면 결과의 차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연구가설에서 기회의 평등은 능력주의와 정의 관계를, 결과의 평등은 부의 관계를 설정한다.

가설 2) 능력주의의 가설: 능력주의의 성향이 강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다.

가설 2.1) 기회의 공정에 대해 지지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가설 2.2) 결과의 공정에 대해 지지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가설 2.3) 젊은 남성은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4)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의 상관관계는 2018년 이후부터 강화되었을 것이다.

III. 연구 설계

1. 데이터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할당제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총 4개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각각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³⁾’,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⁵⁾’,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⁶⁾’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데이터인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는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 성, 연령별로 1,000명을 층화추출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3.10\%p$ 이다. 두 번째 데이터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 자료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성, 연령을 고려하여 1,200명을 비례할당 표본추출 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2.83\%p$ 이다. 세 번째

3)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연구 주관, 2010년 6월 3일 ~ 6월 4일 조사 실시

4)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한국선거학회 연구 주관, 2018년 6월 14일 ~ 7월 4일 조사 실시

5)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연구 주관, 2020년 4월 22일 ~ 4월 27일 조사 실시

6)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연구 주관, 2022년 6월 16일 ~ 6월 20일 조사 실시

데이터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 자료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성, 연령을 고려하여 1,200명을 비례할당 표본추출 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2.83\%p$ 이다. 네 번째 데이터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 자료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성, 연령을 고려하여 1,250명을 비례할당 표본추출 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2.77\%p$ 이다.

2010년 데이터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찬반 문항이 처음으로 포함된 설문조사이나, 능력주의에 대한 문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신 2018년, 2020년, 2022년의 설문조사는 능력주의와 관련된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정의 문제가 불거진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여성할당제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페미니즘의 문제가 정치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이 더욱 선명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미투 운동’과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은 손희정(2015)이 지적한대로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기였으며, 이에 따른 백래시(반발) 또한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이현준·박지훈 2021). 이후,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대남(20대 남성)’이라는 명칭이 등장했고, 남녀 갈등의 본격적인 심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세 시기에 대한 분석이 더욱 의미가 있다.

각 연도별로 여성할당제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가 여성할당제 찬반에 대한 순위 변수(ordered variable)임을 고려했을 때, 변수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보다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하다.⁷⁾ 또한 각 자료가 수집된

7)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또한 시행하였으며,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통계적 유의미성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독립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각 독립 변수들의 측정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 여성할당제의 찬반여부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찬성 정도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질문으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을 일정 비율 공천하는 여성 공천 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제시되었다. 해당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1) 매우 반대한다, 2) 반대한다, 3) 찬성한다, 4) 매우 찬성한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할당제 찬반여부가 “여성” 혹은 “할당제”에 대한 반응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슷한 소수자 우대정책인 청년할당제에 대한 인식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는 “일정비율의 청년(39세 이하)들을 후보로 공천하는 ‘청년공천할당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제시되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선호’와 같이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질문이 포함된 2020년과 2022년의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각 연도 별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변수의 평균은 여성할당제와 청년할당제 모두에 대해 감소하고 있어 할당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연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여성할당제 선호	2010	824	2.96 (0.74)	1 ~ 4
	2018	1,200	2.73 (0.74)	
	2020	931	2.45 (0.94)	
	2022	1,250	2.35 (0.82)	

청년할당제 선호	2020	1,200	2.59 (0.87)
	2022	1,250	2.53 (0.77)

2) 독립변수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앞서 언급했듯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고, 게임의 룰이 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정당하다고 믿는 것이다(노기우·이현우 2022). 기존 연구에서는 능력주의를 다양하게 측정하였는데, 형평 원칙에 기반한 분배적 정의(오서은 2024), 개인간 소득이 평등해야 하는지의 여부(박권일 2021), 운 혹은 노력의 중요성(우명숙·남은영 2021)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조작화(operationalize)한 바 있다. 또한 구분상(2023)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능력주의의 지표로 제시하고, 우명숙·남은영(2021)과 동일하게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능력주의를 크게 1) 기회에 대한 평등과 2) 결과에 대한 공정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능력주의 담론에서 기회에 대한 평등은 “높은 소득과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의 과정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우명숙·남은영 2021, 219)이며, 이에 대한 측정 문항을 교육과 취업에 관한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첫번째는 “평등교육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찬성 정도이다. 각종 시험 및 학력이 능력주의적 평가의 기반이 되는 가운데, 손준종(2004)은 교육 논리로서의 능력주의는 경쟁적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인바 있다(141-142). 두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특히 취업에 관한 문항은 2020년 6월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인국공 사태)”가 촉발한 공정성 논란과 관련이 있다.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건과 관련하여, 높은 공채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 사원 및 취

업준비생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김상철 2020). 인공공 사태는 특히 청년층에서 공정과 형평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이춘재 2021). 따라서 두 번째 문항에서의 찬성 의견, 즉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고 기회의 평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한 공정성의 문항은 크게 형평성과 재분배의 문제로 인식되며, 이는 소득 불평등과 강한 관련성이 있다 (박권일 2021; 우명숙·남은영 2021.; 219). 이 또한 두 가지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첫 문항은 “고소득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이며, 두 번째 문항은 “경제성장보다는 복지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이다. 이 두 문항 모두 능력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조세, 복지)에 대한 찬성 여부를 측정하므로, 측정값이 높을수록 능력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문항이 능력주의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 연구에서도 능력주의의 측정 문항이 단일화되어 있지는 않은 점,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능력주의의 요소를 고르게 묻고 있는 점, 그리고 세 시기에 걸쳐 공통 문항으로 설정되어 있어 다년차 분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능력주의의 측정 요소로 채택하였다.

〈표 2〉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측정 질문	연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기회에 대한 평등	경쟁력 강화 교육	2018	1,190	5.63(2.02)	0 ~ 10
		2020	1,200	5.44(2.62)	
		2022	1,203	5.11(2.76)	
	비정규직 문제 해결	2018	1,187	5.40(2.22)	
		2020	1,200	3.69(2.47)	
		2022	1,204	4.48(2.78)	

결과에 대한 공정	고소득자 세금 부과	2018	1,198	7.07(1.89)
		2020	1,200	6.89(2.58)
		2022	1,190	7.26(2.43)
	복지에 대한 찬성	2018	1,195	5.33(2.19)
		2020	1,200	4.82(2.39)
		2022	1,211	4.85(2.37)

각각의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네 가지 문항 모두 2018년부터 측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적으로 반대(= 0)에서 전적으로 찬성(= 10)까지 11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기회의 평등과 관련한 문항에 대해 찬성할수록(즉 숫자가 클수록), 결과의 평등과 관련한 문항에 반대할수록(즉 숫자가 작을수록)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

3) 통제변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할당제와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빼고 설명하기 힘들다. 입시 경쟁이 주를 이루는 청소년기와 군대와 취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대를 거치며 경제적 안정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 없는 사투 끝에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내재화되기 때문이다(우인범·장승진 2023). 생애주기에 맞추어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내재화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통제변수로 각각 성별, 세대, 결혼여부, 정치이념, 학력, 가구소득을 측정하였다. 그 중 성별 및 세대 변수는 가설 1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가설 2.3에서의 “젊은 남성”은 특히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여성할당제를 반대하기 쉬운 집단으로 상정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종합 모델에서는 연령 효과와 세대 (cohort)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조사 시점에서의 응답자의 나이 및 세대 (20-60대)를 각각 “연령”과 “세대”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는 <부록 2> 참조).

IV. 분석 결과

1. 누가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가? 성별, 세대와 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가설1), 먼저 연도별 인구학적 요소와 각각의 종속변수 간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여성할당제 선호와 각 연도별 인구학적 요소와의 통계 분석 결과이다.

<표 3> 인구학적 변수와 여성할당제 선호

변수	2010	2018	2020	2022
성별	-0.54*** (0.15)	-0.84*** (0.12)	-1.04*** (0.13)	-0.97*** (0.11)
세대	0.04 (0.07)	-0.08 (0.06)	0.25*** (0.05)	0.16*** (0.05)
학력	0.05 (0.08)	0.08 (0.07)	0.00 (0.05)	-0.06 (0.04)
정치이념	-0.49*** (0.08)	-0.06 (0.03)	-0.14*** (0.03)	-0.21*** (0.03)
가구소득	-0.10* (0.04)	-0.05 (0.04)	-0.01 (0.03)	-0.01 (0.02)
결혼여부	-0.04 (0.07)	-0.00 (0.06)	-0.02 (0.06)	-0.02 (0.05)
cut 1	-4.91 (0.53)	-3.50 (0.45)	-1.85 (0.47)	-3.34 (0.46)
cut 2	-3.42 (0.50)	-1.89 (0.44)	-0.59 (0.46)	-1.34 (0.45)
cut 3	-0.40 (0.49)	1.37 (0.44)	1.91 (0.47)	1.45 (0.45)

Log likelihood	-806.16	-1221.55	-1119.37	-1323.84
N	797	1188	931	1175

*** $p < 0.001$; ** $p < 0.01$; * $p < 0.05$.

각각의 통제변수 중 성별은 모든 연도에서 여성할당제 선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차에 대한 가설을 지지한다(가설 1.1 및 1.3). 먼저 성별과 여성할당제 선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모든 측정 시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폭으로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성별의 계수(coefficient)값 및 통계적 유의도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성별의 승산비(odds ratio)는 약 $0.58(e^{-0.54})$ 으로,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찬성 범주에 속할 확률이 약 42%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는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같은 확률이 56.8%, 2020년에는 64.6%, 2022년에는 62.1%로 감소하였다. 즉, 여성할당제에 대한 성별 격차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세대는 2020년부터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세대가 높을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젊은 세대, 즉 청년층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현상이 201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세대에 대한 가설(1.2)과 시기에 대한 가설(1.3)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통계 결과를 통해 설명하겠지만, 할당제를 공정한 취업 시장에서의 방해 요소로 보는 젊은 층의 인식이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부상한 2020년 설문조사부터 나타났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의 성향과 세대와의 상관관계도 유추할 수 있다.

2. 능력주의와 공정의식

1) 기회의 평등과 여성할당제 선호

능력주의에 대한 성향은 개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평등해야 한다는 믿음을 뜻

하며, 여성에게 할당을 통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곧 공정한 경쟁의 장을 해친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고 볼수록 기회에 대한 평등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종속 변수인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와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표 4>), 2018년도에는 독립변수 두 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두 가지 독립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설 2.1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하여 찬성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기회에 대한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함을 의미한다. 2022년에는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항이 여성할당제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육보다는 취업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한 방식인 여성할당제에 대한 견해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기 전인 2018년에는 두 가지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2020년부터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진다는 점에서, 능력주의 논쟁이 가시화된 시점과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다.

〈표 4〉 기회의 평등과 여성할당제 선호 여부

변수	2018		2020		202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평등교육보다 경쟁력 강화 교육이 더 중요	0.01 (0.03)		-0.09*** (0.02)		-0.05* (0.02)	
비정규직을		0.01		-0.17***		-0.13***

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0.03)		(0.03)		(0.02)
성별	-0.84*** (0.12)	-0.82*** (0.12)	-1.00*** (0.13)	-1.11*** (0.13)	-0.94*** (0.12)	-0.96*** (0.12)
세대	-0.08 (0.06)	-0.07 (0.06)	0.25*** (0.05)	0.23*** (0.05)	0.18*** (0.05)	0.20*** (0.05)
월 가구소득	-0.04 (0.04)	-0.04 (0.04)	-0.01 (0.03)	-0.00 (0.03)	-0.02 (0.02)	-0.01 (0.02)
결혼여부	-0.01 (0.06)	0.00 (0.06)	-0.03 (0.06)	-0.05 (0.06)	-0.03 (0.05)	-0.04 (0.05)
학력	0.09 (0.07)	0.10 (0.07)	0.01 (0.05)	0.02 (0.05)	-0.05 (0.04)	-0.06 (0.04)
정치이념	-0.06* (0.03)	-0.07* (0.03)	-0.12*** (0.03)	-0.09** (0.03)	-0.20*** (0.03)	-0.16*** (0.03)
cut1	-3.43*** (0.48)	-3.37*** (0.47)	-2.21*** (0.47)	-2.32*** (0.47)	-3.45*** (0.47)	-3.59*** (0.47)
cut2	-1.81*** (0.47)	-1.76*** (0.46)	-0.94* (0.47)	-1.02* (0.46)	-1.45** (0.46)	-1.55*** (0.46)
cut3	1.45*** (0.47)	1.52*** (0.46)	1.58*** (0.47)	1.54*** (0.47)	1.33** (0.46)	1.25** (0.46)
AIC	2444.44	2435.71	2249.02	2219.50	2594.35	2576.37
BIC	2495.71	2486.41	2297.38	2267.86	2644.76	2626.80
Log Likelihood	-1212.22	-1207.85	-1114.54	-1099.75	-1287.17	-1278.18
N	1,179	1,176	931	931	1,143	1,145

뿐만 아니라 성별과 세대 변수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8, 2020, 2022 년 모두 남성은 여성보다 여성할당제에 반대할 확률이 높았으며, 2020년부터는 세대와 할당제의 관계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세대 변수가 증가할수록,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할당제에 찬성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이는 거꾸로 젊

은 세대일수록 할당제에 반대할 확률이 커짐을 의미한다.

2) 결과의 공정성과 여성할당제 선호

능력주의의 다른 단면인 결과의 평등과 여성할당제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 (2.2)을 검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표 5>),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할당제의 찬반과 지속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성장보다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은 2018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소득 분배 및 고소득층 세금 부과와 두 독립변수 모두가 양(+의 상관관계)을 보였다. 이에 더하여 성별 및 세대 변수도 여성할당제의 선호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회의 평등과 마찬가지로 남성인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할당제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결과의 공정성과 여성할당제 선호

변수	2018		2020		202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경제성장 보다 복지가 중요	0.18*** (0.03)		0.18*** (0.03)		0.17*** (0.03)	
고소득자 세금 부과		0.02 (0.03)		0.13*** (0.03)		0.09*** (0.02)
성별	-0.82*** (0.12)	-0.83*** (0.12)	-1.11*** (0.13)	-1.07*** (0.13)	-1.06*** (0.12)	-1.04*** (0.12)
세대	-0.07 (0.06)	-0.07 (0.06)	0.23*** (0.05)	0.20*** (0.05)	0.15** (0.05)	0.14** (0.05)
학력	0.09 (0.07)	0.08 (0.07)	0.01 (0.05)	0.00 (0.05)	-0.05 (0.04)	-0.06 (0.04)
정치이념	-0.04 (0.03)	-0.06 (0.03)	-0.09** (0.03)	-0.10*** (0.03)	-0.18*** (0.03)	-0.18*** (0.03)

가구소득	-0.03 (0.04)	-0.04 (0.04)	0.00 (0.03)	0.01 (0.03)	-0.01 (0.02)	-0.01 (0.02)
결혼여부	0.00 (0.06)	0.00 (0.06)	-0.05 (0.06)	-0.03 (0.06)	-0.05 (0.05)	-0.03 (0.05)
cut1	-2.36*** 0.48	-3.28*** (0.50)	-0.85 (0.49)	-0.90 (0.51)	-2.40*** (0.49)	-2.66*** (0.51)
cut2	-0.71 (0.48)	-1.66*** (0.49)	0.46 (0.49)	0.38 (0.51)	-0.33 (0.48)	-0.65 (0.51)
cut3	2.62*** (0.48)	1.60** (0.49)	3.04*** (0.50)	2.93*** (0.52)	2.50*** (0.49)	2.13*** (0.52)
AIC	2415.80	2457.88	2215.49	2233.88	2570.84	2561.08
BIC	2466.57	2508.66	2264.85	2282.25	2621.34	2611.38
Log Likelihood	-1197.90	-1218.94	-1098.25	-1106.94	-1275.42	-1270.54
N	1,184	1,186	931	931	1,153	1,130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결과에 대한 문항을 모두 고려한 모델은 <표 6>과 같다. 종합해 보면,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측정했던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공정 두 가지 변수 모두가 여성할당제의 찬성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회의 평등과 관련해서는 채용과 관련한 문항이, 결과의 공정에 대해서는 복지 확대에 관한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복지와 관련한 결과의 공정성은 2018, 2020, 2022년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 특히 복지에 대한 관점은 능력주의의 부상과 관계없이 여성할당제와 상관관계를 보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능력주의의 발현 시기와 여성할당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가설 2.4)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6〉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 선호: 종합모델

변수	2018	2020	2022
평등교육보다 경쟁력 강화 교육이 더 중요	-0.03 (0.03)	-0.07** (0.02)	0.01 (0.02)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0.01 (0.03)	-0.10*** (0.03)	-0.12*** (0.02)
경제성장보다 복지가 중요	0.17*** (0.03)	0.13*** (0.03)	0.16*** (0.03)
고소득자 세금 부과	0.02 (0.03)	0.06* (0.03)	0.03 (0.03)
성별	-0.80*** (0.12)	-1.16*** (0.13)	-1.09*** (0.12)
세대	-0.02 (0.02)	0.05** (0.02)	0.04* (0.02)
연령	0.09 (0.18)	-0.24 (0.18)	-0.22 (0.17)
월 가구소득	-0.04 (0.04)	0.02 (0.03)	-0.01 (0.02)
결혼여부	0.00 (0.06)	-0.03 (0.06)	-0.05 (0.05)
학력	0.10 (0.07)	0.03 (0.05)	-0.04 (0.05)
정치이념	-0.04 (0.04)	-0.04 (0.03)	-0.11*** (0.03)
cut1	-2.66*** (0.65)	-0.21 (0.65)	-1.70** (0.62)
cut2	-1.02 (0.64)	1.14 (0.65)	0.41 (0.62)
cut3	2.33*** (0.65)	3.79*** (0.66)	3.24*** (0.63)

AIC	2398.49	2183.80	2438.86
BIC	2469.42	2251.51	2508.87
Log Likelihood	-1185.24	-1077.90	-1205.43
N	1,172	931	1,098

3. 여성인가, 할당인가? 청년할당제와의 비교 및 성별교차분석

1) 능력주의와 청년할당제 선호

다음으로는 능력주의와 청년할당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만약 능력주의에 대한 성향이 할당제 전반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 것이라면, 여성할당제와 마찬가지로 능력주의에 대한 성향이 강할수록 청년할당제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즉 여성할당제와 마찬가지로 기회에 대한 평등에 대하여 찬성할수록, 결과의 평등에 반대할수록 청년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통계 분석 결과(<표 7>), 2020년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기회에 대한 평등을 중요시할수록 여성할당제와 청년할당제 모두 대하여 반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능력주의에 대한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성·청년과 같은 소수자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질문은 2020년과 2022년 모두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취업기회의 공정 문항에 찬성할수록 청년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기회에 대한 평등과 청년할당제 선호

변수	2020		202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평등교육보다 경쟁력 강화 교육이 더 중요	-0.06** (0.02)		-0.02 (0.02)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0.14*** (0.02)		-0.08*** (0.02)
성별	-0.26* (0.11)	-0.33** (0.11)	-0.51*** (0.12)	-0.51*** (-0.11)
세대	0.06 (0.50)	0.04 (0.05)	0.05 (0.05)	0.06 (0.05)
월 가구소득	-0.02 (0.02)	-0.01 (0.02)	-0.01 (0.02)	-0.00 (0.02)
결혼여부	0.04 (0.05)	0.03 (0.05)	0.08 (0.05)	0.07 (0.05)
학력	-0.01 (0.04)	-0.01 (0.04)	-0.06 (0.04)	-0.07 (0.04)
정치이념	-0.11*** (0.03)	-0.09*** (0.03)	-0.14*** (0.03)	-0.11*** (0.03)
cut1	-2.73*** (0.41)	-2.91*** (0.41)	-3.52*** (0.47)	-3.59*** (0.47)
cut2	-1.37*** (0.40)	-1.52*** (0.40)	-1.48** (0.46)	-1.54*** (0.46)
cut3	1.21** (0.40)	1.10** (0.40)	1.43** (0.46)	1.38** (0.47)
AIC	2889.10	2861.39	2551.31	2547.76
BIC	2940.00	2912.29	2601.73	2598.19
Log Likelihood	-1434.55	-1420.69	-1265.66	-1263.88
N	1,200	1,200	1,143	1,145

그렇다면 결과의 평등은 어떠한가? <표 8>에서 보듯 여성할당제와 마찬가지로, 2020년과 2022년 모두 독립변수로 설정했던 부의 재분배는 청년할당제과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복지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여성할당제와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른 차등적 결과가 아닌 국가의 개입에 의한 부의 재분배에 찬성할수록 청년할당

제에 대한 지지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세대 변수는 청년할당제 찬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청년할당제 선호

변수	2020		202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경제성장 보다 복지가 중요	0.17*** (0.03)		0.09*** (0.03)	
고소득자 세금 부과		0.13*** (0.02)		0.09*** (0.02)
성별	-0.33** (0.11)	-0.30** (0.11)	-0.53*** (0.11)	-0.55*** (0.12)
세대	0.06 (0.05)	0.02 (0.05)	0.02 (0.05)	0.01 (0.05)
학력	-0.00 (0.04)	-0.02 (0.04)	-0.06 (0.04)	-0.06 (0.04)
정치이념	-0.08** (0.03)	-0.08** (0.03)	-0.12*** (0.03)	-0.12*** (0.03)
가구소득	-0.01 (0.02)	-0.01 (0.02)	-0.00 (0.02)	0.00 (0.02)
결혼여부	0.03 (0.05)	0.04 (0.05)	0.06 (0.05)	0.07 (0.05)
cut1	-1.71*** (0.35)	-1.63*** (0.37)	-3.02*** (0.44)	-2.72*** (0.49)
cut2	-0.30 (0.35)	-0.24 (0.37)	-0.95* (0.43)	-0.67 (0.48)
cut3	2.33*** (0.36)	2.38*** (0.38)	1.96*** (0.44)	2.24*** (0.49)
AIC	2847.71	2860.21	2560.83	2516.76
BIC	2893.52	2906.02	2611.33	2567.06

Log Likelihood	-1414.86	-1421.10	-1270.41	-1248.38
N	1,200	1,200	1,153	1,130

2) 능력주의는 남녀에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능력주의와 성별의 교호작용 분석

앞서의 분석에서 능력주의는 청년할당제와 여성할당제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능력주의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 뿐 아니라 ‘청년’이라는 정치적 소수를 우대하는 정책에도 반대하는 경향을 띤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주의적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즉,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며, 이것이 할당제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을 각 능력주의 변수와 교차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9>, <표 10>).

<표 9> 기획의 평등과 성별 교차분석

변수	2018	2020	2022
평등교육보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더 중요	0.04 (0.04)	-0.10** (0.04)	-0.01 (0.03)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0.04 (0.04)	-0.18*** (0.04)	-0.16*** (0.03)
평등교육 < 경쟁력 강화 교육*성별	-0.08 (0.06)	0.04 (0.05)	0.00 (0.05)
비정규직은 기업에서 관리*성별	0.10 (0.06)	0.03 (0.05)	0.05 (0.05)
성별	-0.94* (0.41)	-1.56*** (0.33)	-1.24*** (0.28)
연령	-0.02 (0.02)	0.05* (0.02)	0.04** (0.02)
세대	0.11 (0.18)	-0.19 (0.18)	-0.22 (0.17)

월 가구소득	-0.05 (0.04)	0.01 (0.03)	0.00 (0.02)
결혼여부	-0.01 (0.06)	-0.02 (0.06)	-0.03 (0.05)
학력	0.09 (0.08)	0.03 (0.05)	-0.05 (0.04)
정치이념	-0.06* (0.03)	-0.08** (0.03)	-0.16*** (0.03)
cut1	-3.84*** (0.62)	-1.87** (0.59)	-2.94*** (0.57)
cut2	-2.23*** (0.61)	-0.55 (0.59)	-0.89 (0.57)
cut3	1.05 (0.61)	2.05*** (0.59)	1.92*** (0.57)
AIC	2432.16	2209.84	2546.94
BIC	2503.09	2277.55	2617.38
Log Likelihood	-1202.08	-1090.92	-1259.47
N	1,172	931	1,132

〈표 10〉 결과의 공정과 성별 교차분석

변수	2018	2020	2022
경제성장<복지보다 복지가 중요	0.23*** (0.04)	0.20*** (0.04)	0.15*** (0.04)
고소득자 세금부과	0.04 (0.04)	0.10** (0.04)	0.03 (0.04)
경제성장<복지*성별	-0.09 (0.05)	-0.07 (0.06)	0.01 (0.05)
고소득자 세금부과*성별	-0.01 (0.06)	0.00 (0.05)	0.04 (0.05)

성별	-0.23 (0.53)	-0.85* (0.39)	-.140*** (0.39)
연령	-0.01 (0.02)	0.05** (0.02)	0.03 (0.02)
세대	0.05 (0.18)	-0.24 (0.18)	-0.14 (0.16)
월 가구소득	-0.03 (0.04)	0.02 (0.03)	-0.01 (0.02)
결혼여부	0.00 (0.06)	-0.02 (0.06)	-0.03 (0.05)
학력	0.10 (0.07)	0.02 (0.05)	-0.04 (0.04)
정치이념	-0.03 (0.03)	-0.07* (0.03)	-0.16*** (0.03)
cut1	-2.03** (0.68)	0.80 (0.65)	-1.68* (0.66)
cut2	-0.39 (0.68)	2.13 (0.66)	0.40 (0.66)
cut3	2.97*** (0.69)	4.76*** (0.67)	3.20*** (0.67)
AIC	2416.58	2202.07	2514.16
BIC	2487.64	2269.78	2584.48
Log Likelihood	-1194.29	-1087.03	-1243.08
N	1,183	931	1,122

교차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할당제에 대한 성별 격차가 능력주의에 의해 추동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성별 및 연령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능력주의 측정 변수와 성별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도는 확인되지 않았다.⁸⁾

그렇다면, 20대 남녀 사이의 교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0대 내에서의

성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연도에서 20대를 추출하여 동일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 <표 12>).

<표 11> 기회의 평등과 성별 교차분석: 20대

변수	2018	2020	2022
평등교육보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더 중요	0.09 (0.11)	-0.51*** (0.15)	-0.02 (0.08)
비정규직은 기업에서 관리	-0.25* (0.11)	-0.53*** (0.15)	-0.08 (0.10)
평등교육 < 경쟁력 강화 교육*성별	0.19 (0.16)	0.40* (0.18)	-0.14 (0.12)
비정규직은 기업에서 관리*성별	0.29* (0.15)	0.47** (0.17)	0.06 (0.13)
성별	-4.00*** (1.08)	-7.18*** (1.40)	-1.19 (0.75)
월 가구소득	-0.05 (0.10)	-0.19* (0.08)	0.06 (0.05)
결혼여부	-0.19 (0.21)	-0.15 (0.24)	0.18 (0.20)
학력	0.19 (0.19)	0.22 (0.20)	-0.02 (0.15)
정치이념	-0.13 (0.10)	-0.15 (0.10)	-0.26** (0.08)

8) 성별은 능력주의보다는 인구사회적 변수와 교차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 분석에서 2020년에는 세대, 교육수준, 결혼여부가 성별과의 교차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세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도 남성의 경우 세대가 증가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일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ut1	-5.08*** (1.49)	-8.54*** (2.15)	-2.78 (1.48)
cut2	-3.85** (1.47)	-6.87** (2.12)	-0.88 (1.47)
cut3	0.07 (1.43)	-4.21* (2.06)	1.33 (1.46)
AIC	372.16	275.79	403.16
BIC	411.06	310.57	440.86
Log Likelihood	-174.08	-125.90	-189.58
N	189	134	171

분석 결과, 20대 내에서 능력주의와 성별의 교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2018년과 2020년에는 오히려 가설(2.3)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주의 중에서도 기회의 평등에 찬성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8년과 2020년에는 남성의 경우(성별=1) 교차항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난다. 즉, 20대 여성에 비해 20대의 남성 사이에서는 능력주의와 할당제 반대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 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면, 능력주의 문향을 포함하더라도 20대 남성은 20대 여성에 비해 할당제에 반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결과의 공정과 성별 교차분석: 20대

변수	2018	2020	2022
경제성장<복지보다 복지가 중요	0.22 (0.12)	0.08 (0.14)	0.22* (0.09)
고소득자 세금부과	0.07 (0.13)	0.15 (0.10)	-0.02 (0.09)
경제성장<복지*성별	-0.07 (0.16)	0.22 (0.17)	-0.12 (0.13)

고소득자 세금부과*성별	-0.09 (0.16)	-0.07 (0.14)	0.08 (0.12)
성별	-0.45 (1.46)	-3.78** (1.16)	-1.74* (0.85)
월 가구소득	-0.07 (0.10)	-0.20* (0.08)	0.05 (0.05)
결혼여부	-0.17 (0.21)	-0.30 (0.24)	0.16 (0.20)
학력	0.07 (0.19)	0.29 (0.21)	-0.03 (0.16)
정치이념	-0.08 (0.10)	-0.26** (0.09)	-0.25** (0.08)
cut1	-2.74 (1.61)	-2.99 (1.89)	-1.69 (1.67)
cut2	-1.55 (1.60)	-1.29 (1.88)	0.23 (1.66)
cut3	2.26 (1.62)	1.04 (1.91)	2.54 (1.69)
AIC	379.16	285.91	411.90
BIC	418.06	320.68	450.08
Log Likelihood	-177.58	-130.95	-193.95
N	189	134	178

20대 남녀의 통계 모델 해석에서 유의할 점은 각 연도별 응답자의 규모를 볼 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수가 매우 적을뿐더러 성별로 구분할 경우 그 수는 더욱 적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20대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격차 이외에 능력주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할당제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수록 대중의 선호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분열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다. 특히 여성할당제의 성격차는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세대별로도 할당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나면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여론의 균열은 전보다 심화되었다. 둘째, 여성할당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능력주의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능력주의의 성향과 여성할당제 선호는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능력주의에 대한 키워드가 부상한 이후 통계적 유의미성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회의 평등을 지지할수록, 부의 재분배에 대하여 반대할수록 능력주의의 성향이 강하며, 이는 곧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다. 셋째, 여성할당제 반대의 중요한 기제로 정치적 권력의 강제적 재분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다. 능력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여성 뿐 아니라 청년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세대는 여성할당제와 지속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능력주의와의 교차효과를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성별과 세대 요소가 능력주의가 아닌 다른 기제를 통해 여성할당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보다 엄밀한 개념 정립과 측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의 정치대표성 증진에 끼친 역할을 고려할 때, 여성할당제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 중 하나로 환원할 수 없는 상징적·실질적 중요성을 지닌다(Clayton 2021). 여성할당제의 목적은 남성에 비해 능력이 없는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출마와 당선 과정에 기존의 성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있다(권수현·윤채영 2022). 베즐리 외(Besley et al. 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할당제는 능력주의와 대립하기보다 오히려 능력주의를 강화하며, 남성 정치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대중은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를 대립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능력주의가 표면화된 이후 더욱 공고해졌다. 시장을 지배하는 논리인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차등이 정치적 경쟁인 선거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할당제는 이러한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제도라는 인식은 여성 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2020년대 이후 여성할당제에 대한 선호 결정 요인은 그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던 2010년과 비교하여 정치·경제·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이다. 두 기간 사이의 공백에는 한국 사회가 겪은 여러 변동이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젠더이슈가 선명해졌고 정치화되었으며, 역차별과 공정성 논란이 청년세대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능력주의와 결합한 할당제 담론은 정치인들의 레토릭에 힘입은 바 크다. 2022년 청년 남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여성이라고 해서 사회구조적으로 겪는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설파하는 정치인에 열광하였으며(송정호 2021), 22대 총선에서는 공개적으로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최용락 2024). 능력주의의 만연이 가져올 우려에도 불구하고(김미영 2009; Sandel 2020),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미 할당제와 능력주의를 대척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33.8%)을 크게 밑도는 현실에도 불구하고,⁹⁾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더 이상 여성할당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할당제에 대한 선호를 재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능력주의의 부상과 페미니즘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엄혜진 2021), 능력주의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얼마만큼 젠더화되어 할당제와 같은 구체적 정책에 대한 논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9) OECD, 2023, *Government at a Glance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d5c5d31-en>.

논의가 필요하다. 흔히 능력주의 경향은 역차별을 경험하는 청년 남성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노기우·이현우 2022), 본 연구에서는 능력주의 경향이 성별을 매개로 하여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 기제로 작용함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능력주의의 개념이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는 점에서(정태석 2021), 본 연구의 측정문항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능력주의의 성별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능력에 따른 공정한 대우를 주장하는 여성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할당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진보적인 정치개혁을 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능력주의와 성별 간의 관계를 더욱 엄밀히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여성 및 청년할당제에 대한 성별·세대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은 여성보다 여성할당제 및 청년할당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젊은 세대에 두드러지며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성별과 세대의 교차효과는 청년할당제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여성할당제만의 특수한 현상이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젊은 남성들 사이에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던데, 성중립적(gender-neutral)인 능력주의보다 현대적 성차별주의(modern sexism) 혹은 여성의 경제적 위협과 같이 명시적인 형태의 젠더 백래쉬가 여성할당제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권수현 2018; 신경아 2023; Kim and Kweon 2022, Kim and Park 2024).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능력주의의 젠더·계급·세대적 함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문항을 개발하여, 능력주의와 할당제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신재·정민경. 2020. “여성의 권리 확대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 미투 운동과 여성 공천할당제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5권 1호, 39-69.
- 곽영신·류용재. 2021. “불평등 사회 속 공정 담론의 다차원성: 청년 공정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언론학보』 65권 5호, 5-45.
- 구본상. 2023. “능력주의자와 평등주의자: 공정성 인식 유형의 정치학적 실증 분석.” 『한국정치연구』 32권 2호, 1-30.
- 구은정. 2022. 다원주의 관점으로 재고찰한 공정과 정의: 형평 대 평등. 『경제와사회』, 108-135.
- 권수현. 2018. “백래쉬에 대한 반격: 남성할당제와 남녀동수.” 『젠더법학』 10권 1호, 37-65.
- 권수현. 2019. “정치진입의 성별화된 장벽들.” 『페미니즘 연구』 19권 1호, 91-128.
- 권수현·윤채영. 2022. “의원여성할당제 선호에 대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여성학』 38권 1호, 73-109.
- 김내훈. 2021. “‘이대남’의 포퓰리즘과 그 이면.” 『문화과학』 108호, 146-164.
- 김도경. 2008. “성차 그리고 여성 내에서 정치적 세련됨의 차이.” 『21세기정치학회보』 18집 2호, 93-116.
- 김미영. 2009. “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 능력·공과·필요의 복합평등론: 능력·공과·필요의 복합평등론.” 『경제와사회』 84호, 256-277.
- 김민정. 2014.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 연구』 14권 2호, 203-241
- 김상철, 2020, “‘인국공 사태’가 불러온 ‘가치 갈등.’” 『시사저널』 (7월 12일).
- 김원홍·이현출·김은경. 2007.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한국정당학회보』 6권 1호, 27-54.
- 김은경. 2010.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방향.” 『여성경제연구』 7권 1호, 1-24.
- 김종철·정숙정. 2015.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노기우·이현우. 2022. “청년세대 젠더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능력주의와 운 평 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6집 5호, 57-86.
- 마경희·문희영·조영주. 2017.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남성 들 내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경희. 2007. “여성과 정치 그리고 할당제.” 『페미니즘 연구』 7권 1호, 273-300.
-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세계』 38호, 1-39.
- 박무늬·민혜영·장태훈. 2019. “청년 세대 (20~30 대)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역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권 1호, 85-111.
- 박선경. 2020. “젠더 내 세대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 가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권 2호, 5-36.
- 박효민. 2019. “능력주의 (meritocracy) 를 넘어서: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11-211.
- 서복경. 2010. “17-18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비교: 투입측면을 중심으로.” 『여성 연구논총』8집, 33-60.
- 손준중. 2004.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 재고.” 『한국교육학연구』 10권 2호, 135-153.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 과학』 83호, 14-47.
- 송정호, 2021. “‘이대남’이 밀어올린 이준석 돌풍…‘젠더 백래시’” 『서울경제』 (8월 5일).
- 신경아. 2023. “백래시 정치: 안티페미니즘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서울: 동녘.
- 신기영. 2019. “여성할당제를 넘어 성균형 의회로-할당제의 운용과 20 대 국회의원 들의 인식.” 『이화젠더법학』 11권 3호, 207-243.
- 신기영·황아란. 2017. “‘성균형의회’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한국 과 국제정치』 33권 4호, 27-57.
- 안상수·김인순·윤민재·김보연. 2014.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 군복무 이행,

- 성역할 재사회화 및 성평등정책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업태석. 2010.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
양시의회여성위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13권 1호.,
71-94
- 엄혜진. 2021.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
획.” 『경제와사회』 132호, 47-79.
- 여성민. 2022. 『‘이대남 현상의’정치적’연구:한나 아렌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
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서은. 2024. “능력주의와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 분배 정의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8권 2호, 225-253.
- 우명숙·남은영. 2021.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권 1호, 201-244.
- 우인범·장승진. 2023. “능력주의와 청년 유권자의 보수화?” 『평화연구』 31권 2호,
5-44.
- 윤왕희. 2022. “제 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에 관한 연구: 다층적 가치의
충돌과 카르텔형 공천.” 『현대정치연구』 15권 2호, 5-36.
- 이소영. 2013. “2012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
보』 47집 5호, 255-276.
- 이진옥·권수현·서복경·장명신. 2020.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국
가인권위원회』
- 이춘재. 2021.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한겨레』 (10월
13일).
- 이현준·박지훈. 2021. “‘헤지’가 구성하는 여성에 대한 특혜와 남성 역차별: 공정성
에 대한 남성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열망은 어떻게 여성혐오로 이어지는
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2권 1호, 5-40.
- 정다빈·이재묵. 2020. “한국 정치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정
치정보연구』 23권 3호, 241-273.
- 정은숙. 2015.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16권 7호, 4679-4688

정태석. 202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호, 12-46.

천관울·정한울. 2019. “20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서울: 시사IN 북.

최용락. 2024. ““여성할당제, 비동의간음죄 반대”...또 ‘안티페미’ 꺼낸 개혁신당” 『프리티안』 (3월 27일)

최종숙. 2020.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 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25호, 189-224.

한유정·김민지. 2022.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30권 2호, 101-161.

Barnes, T. D., Córdova, A. 2016. “Making space for women: Explaining citizen support for legislative gender quotas in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Politics* 78(3): 670-686.

Batista Pereira, F., Porto, N. F. 2020. “Gender attitudes and public opinion towards electoral gender quotas in Brazil.” *Political Psychology* 41(5): 887-899.

Batto, N. F. 2018. “Gender Quotas and Upward Mobility in Elections in Taiwan.”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39(4): 451-466.

Beaman, L., Chattopadhyay, R., Duflo, E., Pande, R., Topalova, P. 2009. “Powerful women: does exposure reduce bia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4): 1497-1540.

Beauregard, K. 2018. “Partisanship and the gender gap: support for gender quotas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3): 290-319.

Bell, D. 2013. “Introduction.” in Bell, D. A., Li, C. (Eds.).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Democracy: Political Meritocr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sley, T., Folke, O., Persson, T., Rickne, J. 2017. “Gender quotas and the crisis of

- the mediocre man: Theory and evidence from Sweden.” *American Economic Review* 107(8): 2204-2242.
- Bolton, G. E., Brandts, J., Ockenfels, A. 2005. “Fair procedures: Evidence from games involving lotteries.” *The Economic Journal* 115(506): 1054-1076.
- Clayton, A. 2015. “Women’s political engagement under quota-mandated female representation: Evidence from a randomized policy experimen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8(3): 333-369.
- Clayton, A. 2021. “How do electoral gender quotas affect polic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4: 235-252.
- Corsun, D. L., Costen, W. M. 2001. “Is the glass ceiling unbreakable? Habitus, fields, and the stalling of women and minorities in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10(1): 16-25.
- De Paola, M., Scoppa, V., Lombardo, R. 2010. “Can gender quotas break down negative stereotypes? Evidence from changes in electoral rul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5-6): 344-353.
- Franceschet, Susan, Mona Lena Krook, and Jennifer M. Piscopo. 2012. “‘Conceptualizing the Impact of Gender Quotas’, in Susan Franceschet, Mona Lena Krook, and Jennifer M. Piscopo (eds.), *The Impact of Gender Quotas*.” *New York City: Oxford University Press*: 3-26
- Gilardi, Fabrizio. 2015. “‘The Temporary Importance of Role Models for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4): 957-970.
- Huang, C. L. 2016. “Reserved for whom? The electoral impact of gender quotas in Taiwan.” *Pacific Affairs* 89(2): 325-343.
- Kanter, R. M. 1977. “Some effects of proportions on group life: Skewed sex ratios and responses to token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965-990.
- Keenan, L., McElroy, G. 2017. “Who supports gender quotas in Ireland?.” *Irish*

Political Studies 32(3): 382-403.

- Kim, H., Park, Y. 2024. "Economic Frustration and Resistance to Gender Equality among Young Korean Men." *Asian Survey* Online First. <https://doi.org/10.1525/as.2024.2124374>.
- Kim, J. H., Kweon, Y. 2022. "Why do young men oppose gender quotas? Group threat and backlash to legislative gender quota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7(4): 991-1021.
- Krook, Mona Lena. 2010. *Quotas for Women i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Krook, M. L. 2015. "Empowerment versus backlash: gender quotas and critical mass theory."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3(1): 184-188.
- Lawless, Jennifer L., Richard L. Fox. 2010. *It Still Takes a Candidate: Why Women Don't Run for Off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pset, S. M. 1983.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The Democracy Sourcebook.
- Meier, P. 2012. "From laggard to leader: Explaining the Belgian gender quotas and parity clause." *West European Politics* 35(2): 362-379.
- O'Brien, Diana Z., Johanna Rickne. 2016. "Gender Quotas and Women's Political Leadershi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1): 112-126.
- Sandel, M.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
- Shim, J. 2021. "Gender and Politics in Northeast Asia: Legislative Patterns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in Korea and Taiwan."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42(2): 138-155.
- Talib, N., Fitzgerald, R. 2015. "Inequality as meritocracy: the use of the metaphor of diversity and the value of inequality within Singapore's meritocratic education system." *Critical Discourse Studies* 12(4): 445-462.
- Tripp, Ali Mari, Alice Kang. 2007. "The Global Impact of Quotas: On the Fast Track to Increased Female Legislative Represent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3): 338-361.

Verge, T., De la Fuente, M. 2014. "Playing with different cards: Party politics, gender quotas and women's empowermen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5(1): 67-79.

Weeks, A. C., Masala, F. 2023. "Still 'the Domain of Men?' Gender Quotas and Women's Inclusion in Local Politics in Italy."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8(3): 503-534.

Wolbrecht, Christina, David E. Campbell. 2007. "Leading by Example: Female Members of Parliament as Political Role Mod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4): 921-939.

Yoder, J. 1991. "Rethinking tokenism: Looking beyond numbers." *Gender & Society* 5(2): 178-192.

Young, M. 1958.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870-2033: an Essay on Education and Inequality*. London: Thames & Hudson.

Zimmer, L. 1988. "Tokenism and women in the workplace: The limits of gender-neutral theory." *Social Problems* 35(1): 64-77.

투고일: 2024.06.23. 심사일: 2024.08.03. 게재확정일: 2024.08.05.

〈부록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정의와 측정	
종속 변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성	2018-2022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을 일정 비율 공천하는 여성 공천 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1=매우 반대, 4=매우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더 찬성함을 나타냄
	청년할당제 에 대한 찬성	2020-2022	“일정비율의 청년(39세 이하)들을 후보로 공천하는 ‘청년공천할당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1=매우 반대, 4=매우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청년할당제에 대하여 더 찬성함을 나타냄
독립 변수	기회의 평등	2018-2022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에 대한 찬성 정도를 측정(0=전적으로 반대, 10=전적으로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에 찬성하는 것을 나타냄. “평등교육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정도를 측정(0=전적으로 반대, 10=전적으로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에 찬성하는 것을 나타냄.
	결과의 평등 (소득재분배)	2018-2022	“고소득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정도를 측정(0=전적으로 반대, 10=전적으로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찬성이 높은 것을 나타냄. “경제성장보다는 복지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에 대한 찬성 정도를 측정(0=전적으로 반대, 10=전적으로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을 나타냄
사회 · 인 구학 적 변수	성별(더미)		1=남성, 0=여성
	세대		응답자의 연령이 속한 세대 변수, 1(20대, 20-29), 2(30대, 30-39), 3(40대, 40-49), 4(50대, 50-59), 5(60세 이상)
	결혼여부		1(결혼), 2(사별), 3(이혼, 별거) 4(미혼)에 대하여 한 개의 응답 선택.

	정치이념	2010년 (1(진보) - 5(보수))로 측정. 2018-2022 (0(진보) - 10(보수))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이념이 보수인 것을 나타냄.
	학력	2010, 2018 (1(중졸 이하) - 4(4년대학 재학 이상)) 2020 (1(유치원) - 9(박사 과정)) 2022 (1(전혀 교육 받지 못함) - 10(박사 과정 수료))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아짐을 나타냄.
	가구소득	월 가구소득에 대한 물음 2018 (1(100만원 미만) - 9(800만원 이상)) 2020,2022 (1(100만원 미만) - 11(1,000만원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아짐을 나타냄.

〈부록 2〉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연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성별	2010	1,000	0.49(0.50)	0 ~ 1
	2018	1,200	0.50(0.50)	
	2020	1,200	0.50(0.50)	
	2022	1,250	0.49(0.50)	
나이	2010	1,000	43.56(15.44)	19 ~ 89
	2018	1,200	46.75(14.26)	20 ~ 86
	2020	1,200	46.62(14.50)	18 ~ 82
	2022	1,250	47.41(14.55)	19 ~ 85
세대	2010	1,000	2.91(1.40)	1 ~ 5
	2018	1,200	3.17(1.40)	
	2020	1,200	3.24(1.44)	
	2022	1,250	3.31(1.46)	
학력	2010	988	2.71(1.08)	1 ~ 4
	2018	1,200	2.77(0.95)	1 ~ 4
	2020	1,200	6.34(1.32)	3 ~ 9
	2022	1,250	7.38(1.35)	1 ~ 10
정치이념	2010	990	2.89(0.93)	1 ~ 5

	2018	1,188	4.78(1.94)	0 ~ 10
	2020	1,200	4.64(2.20)	
	2022	1,175	5.05(2.07)	
월 가구소득	2010	966	3.79(1.89)	1 ~ 8
	2018	1,200	4.77(1.59)	1 ~ 9
	2020	1,200	4.99(2.44)	1 ~ 11
	2022	1,250	5.30(2.54)	1 ~ 11
결혼 여부	2010	992	1.87(1.30)	1 ~ 4
	2018	1,200	1.69(1.23)	
	2020	1,200	2.07(1.38)	
	2022	1,250	2.07(1.38)	

Who Opposes Gender Quotas: Meritocratic Beliefs and Opposition to Gender Quotas in South Korea, 2010-2024

Go, Min Hee | Ewha Womans University

Lee, Hye Young | Ewha Womans University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quota system, public opinion on gender quotas in South Korea has gradually deteriorated since their introduction,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While the rise of meritocratic beliefs has been regarded as the main driver of such opposition, empirical support for this claim remains weak. Using multi-year survey data, this study unveils the relationship between meritocracy and gender quotas in South Korea. We report four findings. First, despite the positive impact of quotas on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on, public opinion on gender quotas has become less supportive and more divided over time. Second, the change in views on quotas is closely related to the rise of meritocracy, in that meritocratic orientation is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opposition to quotas. Third, those with stronger meritocratic beliefs do not only oppose gender quotas but also for quotas for the youth, another demographic with little political power. Finally, while gender and cohort effects were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the support for quotas, we found little evidence for their interaction effects with meritocracy. This suggests that the gender gap in opposition to quotas may be mediated by more explicit forms of anti-feminist backlash than meritocracy.

Key Words | Gender Quota, Meritocracy, Legislative Quota, Gender Backlash, Fairness